몽골·티베트 불교 미술 'A to Z'를 만나다

무우수불교아카데미 특별강좌

몽골과 티베트의 불교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무우수불교아카데미는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서울 인사동 무우수불교미술원 3층에서 매주 토요일 '몽골-티베트 불교미술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김선정 몽골불교미술원 교수가 진행하며, 이론과 실기로 나눠 상세히 이뤄진다.

이론 강좌 커리큘럼으로는 △대몽골의 불교미술 △몽골 · 티베트 불상과 불교미술의 기원 △몽골 · 티베트 불교의 도상비례학 △화면분할법/ 도상비례의 단위 △불교 인체학 · 해부학 · 천문점성학과 미술 △만다라 개론 등이 이뤄진다.

실기로는 △화면분할작도법/ 부처님 호상 작도 △법의를 입은, 벗은 부처님 도상 작도 △분노존 금강지보살 △한국불교의 불상과 보살의 도상 작도 등을 배울 수 있다.

'몽골 · 티베트 불교미술 특별강좌'는 오는 9월 2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정원은 15명이다.

(02)720-3554

신성민 기자

MSC 프로그램 배우는 전문 연수 열린다

불교상담학회 9월 24일부터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백경임)는 9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격주 토요일 총 4주 8회에 걸쳐 제2차 'MSC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MSC(마음 챙김 자기 자비, Mind ful Self-compassion)' 프로그램은 자기 자비의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불교와 심리치료 통합의 선구자인 하버드대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와 크리스틴 너프 박사에 의해 개발됐다.

MSC 프로그램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자비 수행에 대해 관심있는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음 챙김과 자기 자비의 핵심 원리와 다양한 수행법을 익힐 수 있다.

강의는 권선아 중앙승가대 강사가 진행하며, 장소는 동국대 명진관 2층 좌선실이다. 교육비는 40만원이며, 스님은 10% 할인된다. 프로그램 이수시 불교상담전문가 실습시간 24시간 인정된다. (010)6746-5926

신성민 기자

"탈종교화 극복, 공공성 회복에 달려"

조계종 포교원 · 불광연구원, '탈종교화' 주제 연찬회

탈종교화는 이제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 종교로서는 가장 큰 위기의 조짐이기도 하다. 탈종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생구제와 구원이라는 종교의 본색(本色)을 되살리고, 자정을 통한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연구실과 불광연구원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종교화 시대, 종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전문 학자과 종교인들이 참여해 현재 탈종교화 상황과 전망, 대안들을 내놨다.

연찬회 참석 전문가들은 탈종교화는 종교 · 교당 등 경계의 무너짐을 주요한 현상으로 꼽았다.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은 탈종교화의 주요 현상으로 세속화와 탈제도종교화를 들었다. 세속화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것이고, 탈제도종교화는 종교적 삶에서 제도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종교가 공적 지위를 잃고 사적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세속화의 한 측면이며, '불교적 그리스도인', '유대인 불자' 등 다중 소속 현상은 탈제도종교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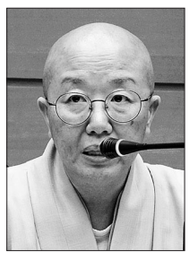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탈종교화 시대에 세속적 제도들이 종교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들이 나서서 종교의 전문영역이었던 힐링의 산업화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고, 영성을 마케팅의 주요 범주로 활용하고 있다. 대중스타에 대한 팬덤은 청소년의 유사종교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탈종교화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현상 중 하나는 명상 대중화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상은 단순히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자, 지식인, 웰빙족 등이 공유하는 힐링의 기제다.

명상의 대중화에 대해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명상의 대중화는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이 되는 것)와 함께 발생한 근대적 현상"이라며 "명상은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소비문화의 하나로서, 명상의 유행과 더불어 오히려 탈종교화와 종교의 사사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상업주의와의 결탁은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상의 대중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한국불교의 '다불교' 현상이다. 티베트, 미얀마, 태국, 일본 등의 다양한 불교 전통이 혼입되고 있고 MBSR과 같은 현대적 명상법들이 서구에서 역수입되고 있다.

명법 스님은 "다불교 상황은 다종교 상황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불교를 약화시키고 종교를 사생활 또는 취미생활로 여기게 했다"면서 "이제 한국불교는 종교 시장에서 타종교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다른 불교전통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이 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명법 스님


정경일 원장


김근수 소장


김진호 실장

세속화 · 脫제도종교가 주요 현상
다중 소속, 명상 산업 단적인 예
하화중생 · 구원, 종교 본질 찾아야

탈근대사회 불교, 제 역할 위해선
내부 개혁통한 공공성 회복 중요
"원장 선거, 시민 20% 참여 유도
종단 넘어 국민 전체 축제 만들자"

이어 "한국불교는 아직까지 다문화, 다종교, 다불교 상황을 수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상대주의를 허용할 만큼 권위주의를 청산하지도 못했다"면서 "불교를 현재적 경험 속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위치했던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다시 현재 한국 상황과 접합시키는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으로 '중생구제'와 '구원'이라는 종교 본질을 되찾는 것과 공공성의 회복을 꼽았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보여준 지도부 교체, 인적 청산, 개혁의 길이 조계종 등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총무원장 선거를 사부대중 20%를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고, 나머지 20%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근수 소장은 "총무원장 선거가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하면, 사람들이 조계종을 눈을 비비고 다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일 원장은 '탈사회화'에 종교가 맞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불안을 잊게 하는 '아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경일 원장은 "이 시대에 종교가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할 것은 종교의 위기가 아닌 민중의 위기"라며 "고통의 시대에 종교가 해야 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종교본색(宗教本色)'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법 스님은 불교 내부 개혁을 통한 공공성 회복을 역설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했다. 다만, 공동체적 삶은 수행자 · 재가자가 공히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설하는 △신화공주(身和共住: 몸으로 화합함이니 같이 살라) △구화무쟁(口和無諍: 입으로 화합함이니 다투지 말라) △의화동사(意和同事:뜻으로 화합함이니 같이 일하라) △계화동수(戒和同修: 계율로 화합함이니 같이 수행하라) △견화동해(見和同解: 바른 견해로 화합함이니 함께 해탈하라) △이화동균(利和同均: 이익으로 화합함이니 균등하게 나누라) 등 여섯 가지 화합(六和)의 덕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여성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탈근대 사회에서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불교 내부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가수행자가 지향하는 공적인 정신과 초연한 삶의 자세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 파편화된 탈근대사회에 가장 뛰어난 위로이자 해방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 불교학 동향 · 이슈를 '한눈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세계의 불교학 연구〉발간

동아시아부터 인도 · 서구 등 불교학 연구 현황 · 역사 살펴

세계 각국의 불교학 연구 동향과 이슈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술서가 발간됐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연구소의 첫번째 학술총서인 〈세계의 불교학 연구〉를 발간했다. 이는 '세계의 불교학: 동향과 과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획한 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들을 담아낸 것으로 연구소 측은 "세계불교학 연구소 총서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책에는 총 9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주제는 한국부터 인도, 스리랑카, 독일 등의 불교학을 다룬다.

연구소 소장이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고영섭 교수는 '한국불교학의 세계화와 세계 불교학의 한국화 방안- 한국어와 영어 권역 불교학술 논저를 중심으로'를 통해 국내외 불교학 연구의 공유와 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배경아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 · 동아시아 불교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에서 불교 문헌학을 활성화해 불교학의 연구 업적을 풍부하게 축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보훔대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이민성 씨는 '독일의 불교학 연구 프로젝트 현황'을 통해 독일의 뮌헨 대학, 하이델베르크 대학, 보훔 대학 등에서 진행 중인 불교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이들 대학의 불교학 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문헌학'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또한 문진건 동국대 명상심리학과 초빙교수는 '호적과 스키의 논쟁'을 소개하고 미국 선학 연구사를 되짚는다.

고영섭 소장은 "연구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세계 불교학을 깊이 연찬하고 소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교를 쉽게 전하려는 데 있다"면서 "향후 권역을 한국-동아시아 불교학 연구, 인도-남아시아 불교학 연구, 유럽 불교학 연구, 미주 불교학 연구로 나눠 상호 대비와 대조 및 비교를 통해 논구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QS세계대학평가' 역대 최고 기록

국내 14위 · 세계 400위권 첫 진입… 지난해보다 93계단 상승해

동국대(총장 보광)는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6 QS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4위, 세계 순위 441~450위에 올랐다고 9월 6일 밝혔다.

QS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3,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평판(40%)을 비롯해 △교수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당 학생비율(20%) △기업계 평판(1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원 비율(5%) 등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동국대는 학계평판과 교수당 학생비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4년 연속 순위를 끌어올렸다. 실제, 동국대는 2013년 601~650위 등급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537위에 올랐고 올해는 444위로 93계단 상승해 세계대학순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 동국대의 순위가 크게 오른 것은 40%를 차지하는 학계평판 지표와 20%를 차지하는 교수당 학생비율에서 선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곽대경 동국대 기획처장은 "그동안 동국대의 연구역량은 세계 학계에서 다소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어 학계평판 지수가 좋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들의 연구역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 웹진 등을 제작, 해외대학 및 글로벌 기업에 정기적으로 보냈다. 전략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계평판 지표는 전 세계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본인이 소속한 대학을 제외하고 최고의 대학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상담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